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 만 수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물의 이미지를 통한 숭고의 표현

- 본인 작품 중심으로 -

2024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학과

지혜영

물의 이미지를 통한 송고의 표현

- 본인 작품 중심으로 -

이 만 수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24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지혜영


인 준 서

지혜영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4년 6월

심사위원장 유근택 

심사위원 이반수 

심사위원 노신경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논문은 압도적인 에너지를 가진 물의 이미지를 통해 승고에 다가가며 시원하고 환기적인 쾌감으로 화면을 탐구하고 있다. 연구자에게 물은 거대한 에너지로서 쾌감을 선사하며 이는 내적 경험과 밀접한 상호작용을 가진다.

물의 이미지는 크게 생명력과 소멸, 재생, 환기의 이미지로 고대에서부터 역사와 경험의 중첩을 통해 현대에 통용되었다. 시대를 거둬하면서 자유로운 사유와 상징을 통해 현실과 개인의 내면을 연결시키는 매개체로서 존재하게 되었다.

물은 연구자 작품에 승고를 표현하는 매체로써 존재하게 되며 자연의 거대한 기운과 감응하게 된다. 승고는 동·서양에서 비슷하면서도 다른 양상을 보인다. 서양에선 크게 버크와 칸트, 리오타르를 중심으로 승고에 대한 사상이 이어져 오면서 복합적인 감정으로 재현할 수 없는 초월적인 내면 활동이라 말한다. 동양에서는 ‘높다’, ‘크다’라는 개념을 통해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자연을 신비주의적 승고로 나타낸다.

이러한 승고는 연구자에게 현시할 수 없는 미적 감정으로 나타나 반복 경험을 통해 신선하고 상쾌한 쾌감으로 나타난다. 이는 물의 역동적인 모습으로 화면에 나타나며 창조적인 내적 공간이 생성되고 물의 조형성을 통해 유한하지만 무한한 물의 시원한 에너지를 확인하게 된다.

연구자는 화면에 가득 찬 색감을 통해 삶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에너지적 충들을 표현하며 색채가 가지는 에너지와 상징을 통해 내면의 정신과 감정의 환기를 촉발한다. 이러한 화면은 무의식 속 경험에 의한 내적 공간을 떠올리게 만들었고 삶을 통해 중첩된 경험을 화면에 표현하는 것에 집중하게

된다. 이는 선의 중첩과 드립핑 기법을 통해 현실에 드러난 초월적인 내면 세계 너머로 가시화하게 된다. 이러한 시각적인 인식과 함께 의식의 세계 너머로 넘어가는 것은 보는 이의 개별적인 경험을 창조적인 모습으로 새롭게 탄생시킨다. 즉, 재현을 넘어선 초월론적인 환원을 통해 형상적인 환원으로 치환되어 창조적 공간으로 완성되게 된다. 이는 연구자의 작품에서 물의 이미지를 빌려 나타나고 있다. 내면의 정리 및 셋김의 초월적 의식을 통해 시각적인 부분부터 기존의 것을 파괴하고 사유하며 새로운 탄생을 통해 궁극적이며 정확한 효과를 체험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물이 가진 시원하고 상쾌한 느낌이 드러나기를 바라며 승고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유도하고, 내면적인 쾌감을 제공되기를 바란다.

목 차

논문개요

| | |
|-----------------------------------|----|
| I. 서론 | 1 |
| II. 본론 | 3 |
| 1. 물의 상징 및 의미 | 3 |
| 2. 승고에 대한 고찰 | 6 |
| 3. 작품에 나타나는 승고미 | 8 |
| 1) 물과 승고미 | 8 |
| 2) 무한한 물의 조형성 | 10 |
| 4. 작품 분석 | 16 |
| 1) 색감과 표현 | 16 |
| 2) 경험을 통한 물의 이미지 속 중첩 표현 연구 | 24 |
| 3) 재현의 너머 창조적 승고 | 29 |
| III. 결론 | 34 |

참고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 | |
|--|----|
| 【작품 1】 환기, 2023, 광목천에 채색, 130.3×648.8cm | 10 |
| 【작품 2】 variety no.1, 2023, 광목천에 채색, 41×110cm | 11 |
| 【작품 3】 refreshing(part 1), 2023, 캔버스 2합 천에 채색, 130.3×162.2cm | 12 |
| 【작품 4】 refreshing(part 2), 2023, 캔버스 2합 천에 채색, 130.3×162.2cm | 12 |
| 【작품 5】 BOMB!! BOMB!! (6), 2023, 광목천에 채색, 162.2×130.3cm | 13 |
| 【작품 6】 hydrologic cycle, 2024, 광목천에 혼합재료, 130.3×162.2cm | 15 |
| 【작품 7】 BOMB!! 1, 2023, 광목천에 채색, 117×91cm | 18 |
| 【작품 8】 deep in the water no.2, 2024, 광목천에 채색, 89.5×145.7cm | 19 |
| 【작품 9】 편안한 흔적 속 상쾌함 no.1, 2023, 캔버스 2합천에 채색, 117×91cm | 21 |
| 【작품 10】 Flood, 2024, 광목천에 혼합재료, 72.7×50cm | 23 |
| 【작품 11】 Fool, 2024, 광목천에 채색, 50×72.7cm | 23 |
| 【작품 12】 달 밤, 2022, 천에 채색, 60.6×72.7cm | 25 |
| 【작품 13】 BOMB!! BOMB!! (1), 2023, 광목천에 채색, 162.2×130.3cm | 27 |
| 【작품 14】 Billowing water no.1, 2023, 광목천에 채색, 162.2×130.3cm | 28 |
| 【작품 15】 deep in the water, 2023, 광목천에 채색, 200×90.5cm | 30 |
| 【작품 16】 Deep water, 2024, 광목천에 혼합재료, 145.5×112.1cm | 31 |
| 【작품 17】 water washed, 2024, 광목천에 채색, 89.9×145.7cm | 33 |

I. 서 론

삶에선 여러 선택과 갈등, 의지의 충돌이 일어난다. 연구자는 이러한 충돌을 통해 우리의 신체는 외적으로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힘들고 지친 과부하 상태가 지속된다. 이러한 상태가 연구자는 중첩적으로 쌓여간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경험은 언젠가는 폭발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자연을 통해 환기하며 살아간다. 연구자는 자연 중에서도 특히 ‘물’에 주목했다.

연구자에게 물은 크게 2가지 의미로 다가왔다. 먼저 샤워를 하거나 수영장에 들어가 있거나 혹은 욕조에 몸을 담고 있을 때 느껴지는 부유감과 가벼움을 통한 안정감과 피로가 풀리는 느낌이 있으며, 두 번째로 폭포나 바다에서 느껴지는 거대한 힘을 통해 내면까지 자리잡는 상쾌함을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물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시원함, 즐거움, 상쾌함 등을 느끼게 되었고 이는 연구자에게 긍정적인 의미로서 자리잡히게 되었다. 물은 곧 연구자에게 일상에서의 탈피 혹은 시원한 쾌감을 통해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로 자리 잡았고 복합적인 감정의 역동적인 움직임으로 ‘물’을 통해 작품 화면에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화면을 드러내는 과정을 통해 본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승고의 의미와 같다고 생각했고 이를 본 논문을 통해 확인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연구자의 작품 속 물의 이미지가 가진 압도적인 자연의 기운을 통찰함과 동시에 물의 색감과 경험 및 창조적인 내면의 공간 변화로 인해 일어나는 환기를 승고로 밝히는 것에 목적을 둔다.

먼저 2022년 대학원에 입학하여 석사학위 청구전까지 진행되었던 연구자의 작품 속 물의 이미지를 분석하기에 앞서 물의 이미지에 나타나는 상징적

의미를 탐구하며 이를 신화적, 철학적, 종교적 시선을 통해 고찰할 것이다.

두 번째 장에선 승고의 어원과 이의 정립 과정에 대해 살펴보며 동·서양에 나타나는 승고미의 양상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세 번째 장에선 앞에서 확인한 물의 이미지와 승고에 대한 고찰을 통해 연구자의 작품에 나타나는 물과 승고미에 대한 연관성 및 연구자가 생각하는 승고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작품에 드러나는 물의 조형성 속 무한성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네 번째 장에선 본인 작품 속 물의 이미지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며, 총 3가지로 항목을 나누어 분석할 것이다.

첫째, 초기 작품에서 최근 작품에 나타나는 물의 상징적인 색감을 통해 창작적인 매개체로서 어떻게 승고에 다가갔는지 그 과정을 이야기해 볼 예정이다.

둘째, 현실 속 경험의 중첩을 통해 나타나는 물의 에너지를 재인식하는 과정을 바탕으로 창작된 작품을 살펴본다. 현실의 경험은 내면세계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필시 겪게 되며 여기에서 생성되는 감정의 에너지와 상상의 연관성을 표현방식을 통해 직접적으로 확인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현 너머 초월적인 세계로서 확장된 의식세계의 영역으로 존재하는 작품을 살펴본다. 다양한 물의 물질적 변화를 통해 파괴와 창조의 경계를 허물며 초월론적인 환원을 통해 보는 이에게도 상상의 기회를 제시한다. 이로 인해 나타나는 초월적인 의식에 대한 표현을 탐구하고자 한다.

II. 본 론

1. 물의 상징 및 의미

물은 보편적으로 공기 중에는 수증기, 안개로 접할 수 있으며 액체 상태로는 마시는 물, 계곡, 폭포, 파도, 바다 등의 형태로 접하게 된다. 이러한 물의 형상은 순환하면서 그 모습을 변화해 나타난다. 본 장에선 수많은 의미와 상징으로 현대까지 통용되고 있는 물의 의미를 동·서양을 통해 살펴본다.

서양에선 물에 대한 다양한 시각 속 그리스 문화에서 최초의 철학적 사유가 일어났고 당시 그리스 문화는 과학적 성향¹⁾을 가지고 있어 그리스 이전의 물의 요정이나 물의 정령, 물의 여신 등이 나오는 신화적인 사유를 마무리했다. 이후 탈레스(Thales, BC 624- BC 545)가 새롭게 물, 불, 흙, 공기라는 4가지 원소로서 세계에 대해 접근하는 철학을 풀어내면서 물은 가장 충만한 생명력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그와 함께 철학이 시작하는 지점에서 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²⁾ 이후 프랑스의 철학자인 바슐라르(Gaston Bachelard, 1884-1962)가 새롭게 물에 대한 이론적인 기준을 만들었다.

바슐라르는 물의 외적 이미지와 물이 가진 다양한 성질뿐만 아니라 형이상학적 존재로서 우리에게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연구하며 의식의 너머 깊은 무의식과 물의 세계를 연관 지어 물질적 상상이론을 제시했다. 또한 물의 요정과 정령, 신화나 책에 나온 이야기들은 무의식 속에 박혀있다 하였고 이러한 상징의 밑에 있는 물은 창조와 투영, 정신을 정화하는 기능을 상징한

1) 장파, 『동양과 서양 그리고 미학』, 유중하 역, 푸른숲, 1999, p.41.

2) 박규철, 『그리스 로마 철학 이야기』, 동과 서, 2011, pp.76-78.

다고 했다.³⁾ 이러한 물의 특성은 상상력을 자극하고 인간의 감정에 궁극적면서도 정화적, 환기적인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이는 종교적인 부분에서도 드러난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가 물을 통해 세례를 받고 다시 부활하게 되는 사건을 통해 생명의 종말과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이야기하며⁴⁾ 성경의 첫 구절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하의 물을 하나로 모아서 땅과 바다로 나누어 만물을 창조하셨으나, 인간의 타락함에 홍수 심판으로 모든 것을 다시 삼키게 하여 인류사를 새롭게 전개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⁵⁾ 이 구절을 통해 물은 창조적이며 생명의 생성과 동시에 정화적인 소멸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이야기한 이러한 물의 상징들은 서양에서 다양한 시대의 여러 작가들에게 나타난다. 물의 본질적인 모습과 속성을 드로잉으로 묘사한 레오나르도 다빈치(Leonardo da Vinci, 1452-1519)와 자신의 내면에 상징되는 물의 이미지를 통해 초현실적인 형상으로 표현한 파울 클레(Paul Klee, 1879-1940), 물 이미지 자체를 작품의 주체로 삼는 팻 스테어(Pat Steir, 1938-), 신화적, 원시적인 물의 숭배를 표현한 보티첼리(Sandro Botticelli, 1445-1510) 등을 그 예시로 들 수 있다.

동양에선 고대의 신화 중 우리나라의 신화에서도 물을 숭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한국 민속신앙인 바리공주 설화에 죽은 부왕을 약수로 살린다는 구절은 물의 생명에 대한 재생적 의미와 신성함⁶⁾을 담고 있으며 실생활 속에서도 물은 부정을 씻어내는 의미로 쓰인다.

이후 등장하는 노자는 인간의 도리와 자연의 섭리를 물이 흘러 빈 곳을 메

3) 가스통 바슐라르, 『물과 꿈』, 이가림 역, 문예출판사, 1980. pp.18-214.

4) 차오위. 「현대미술의 물(水)에 대한 사상 표현 연구」, 群山大學校 박사학위논문, 2020. p.17.

5) 『구약성서』 창세기 1장 10절-7장 24절

6) 임명선. 「회화작품에서 물의 상징적 의미와 치유적 성격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p.7.

우고 생명을 주며 침전된 물은 정화하여 다시 흐르는 것이라 하였다. 또한 도덕경 32장에서 “마치 천곡이 운우가 되고 강해가 땅을 비옥하게 하고 (중략) 도로써 이 모든 것을 보면 하루라도 순환하지 않음이 없다.”⁷⁾는 구절을 통해 물은 만물과 어떤 관계를 맺어 수행함과 동시에 유한성을 지니게 되고, 한계가 다른 것으로 이어지면서 순환의 고리를 형성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는 물의 물질적인 변화를 통해 우리의 삶을 순환하며 접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주고 정화를 통한 무한한 지속을 보여준다.

이러한 모습은 서양과 똑같이 동양화가들의 작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많은 이들 중 대표적으로 몇 명을 이야기하자면 물의 운동감과 긴장감을 표현한 정선(鄭敼, 1676-1759), 물 자체의 유동적인 흐름에 집중한 마원(馬援, 1160-65년경에서 1225년경), 물을 통해 사상과 인물의 정신세계를 표현한 강희맹(姜希孟, 1424-1483), 극적인 파도의 움직임을 포착한 카츠시카 호쿠사이(Katsushika Hokusai, 1760-1849) 등의 작품을 이야기할 수 있다.

즉, 물은 심층 속 깊이감과 표면의 넓이, 파동이 일어나고 흐르는 등의 물리적 특성을 통해 무한적인 심상을 전재하도록 감응하며, 이는 활동성 및 생명력, 정화적인 이미지로, 역동적인 움직임과 에너지적 흐름의 변화로, 거울적 현상과 나르시시즘 등의 내면적인 상징적 요소를 가진다. 또한 물은 깨끗함, 순백, 순수 등으로 동·서양에서 예로부터 주요한 상징적 요소로 발견되고 세례를 받는 의식을 통해 종교에서도 드러나며, 불결하고 더러운 것을 정화하는 힘을 의미한다. 연구자는 이러한 상징을 통해 현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의 순환과 충돌을 표현하고 내적 환기와의 연관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7) 김형효, 『사유하는 도덕경』, 소나무, 2004. p.262.

2. 숭고에 대한 고찰

숭고의 어원은 그리스어 'Hypsos'에서 시작했다. 이 그리스어는 걱정적으로 솟아오르는 영혼의 고양을 가르켜 쓰여진 말로 '높이' 혹은 '높음'이라는 의미에서 전이 되었다.⁸⁾ 또한 버크(Edmund Burke, 1729-1797)의 『숭고와 미의 관념의 기원에 관한 철학적 탐구』를 통해 숭고는 전통적으로 권위를 인정받은 '미'의 개념과 더불어 근대 미학의 핵심 개념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⁹⁾ 이러한 숭고의 미학은 서양과 동양에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서양에서 숭고는 버크에 따르면 숭고와 미의 본질을 환희와 만족으로 엄격하게 구분하고 후에 칸트(Immanuel Kant, 1724-1804)에게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져 미학체계를 이중적 구조 위에 수립하게 된다.¹⁰⁾

칸트가 말하길 미는 직접적 만족으로 순수한 단일감정을 주는 것에 비해 숭고는 혼합감정으로 간접적 방식으로만 쾌감으로 체험된다고 주장하였다.¹¹⁾ 즉, 숭고에서의 쾌감은 생명력이 순간적 긴장으로 위축되었다가 안도감과 함께 뒤이어 생명력이 더 강한 힘으로 솟아난 쾌감이다. 특히 칸트는 대자연에서 드러나는 압도감, 경외감을 통해 느껴지는 측정불가능한 힘을 인간의 정신을 통해 극복하게 되는 것을 숭고로 여겼다. 이는 18세기 말 낭만주의 회화에서 잘 드러난다. 낭만주의 화가들은 당시 거대한 자연 속에 인간을 그려 넣으면서 이성을 가진 존재로는 측정할 수 없는 무한하고 초월적인 세계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는 연구자의 【작품 9】에서도 드러나며 물의 이미지로 작품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시작이었다.

8) 안성찬. 「숭고의 미학」,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p.21.

9) 박지용. 「칸트의 숭고 개념과 숭고의 미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p.6.

10) 안성찬. 앞의 논문, p.66.

11) 안성찬, 『숭고의 미학: 파괴와 혁신의 문화적 동력』, 유로서적, 2004, p.135.

이후 칸트와 버크를 이어받은 리오타르(Jean-François Lyotard, 1924-1998)가 재현할 수 없는 것이 초월성을 가진 숭고라 주장하였다. 그는 숭고가 롱기누스가 주장하는 웅장한 파토스¹²⁾일 뿐만이 아니라 내면의 활동이라 이야기 하였다.¹³⁾

반면 동양의 세계관은 인간과 함께 합일되는 ‘천인합일(天人合一)’의 관계에 있으며 동양의 철학 사상에서 ‘높다’, ‘크다’라는 개념은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자연과 하늘, 신에 대한 신비주의적 숭고미로 나타난다.¹⁴⁾ 이는 특히 산수화에서 많이 나타났는데 거친 화가의 필치와 무질서한 구도의 구성, 새로운 색채들의 조합 등은 당시의 미적 측면과 충돌하게 되었다. 이는 보는 이의 사고와 정서적 공감을 이끌어내 숭고를 실현시켰고 구름, 연기, 안개, 아지랑이의 표현으로 작품화면에서 모호하고 가늠할 수 없는 무한함을 나타내는 숭고미로 나타났다.¹⁵⁾ 또한 자연의 모습에서 높이와 크기에 따른 무형의 힘에 들어있는 정신으로써 위용적이거나 경외감을 의미하였다. 이는 화북산수를 그린 작가들의 표현에서 잘 드러난다.

이들은 화면에 거대한 산수를 세로축 방향으로 그리며 주산(主山)의 장엄함이나 웅장함을 통해 인간과의 대조를 나타내며 숭고의 체험을 표상하고 있다. 이를 표현하기 위해 이들은 자신만의 준법을 사용해 보는 이가 산수화를 볼 때 압도되는 느낌을 느끼게 하였다. 본인의 작품에선 준법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작품 3】 과 【작품 4】 를 통해 아지랑이, 물줄기의 중첩 표현을 일기(逸氣)가 하나로 뒤섞여 무성한 것으로 작품에 표현해 나타내고 있다.

12) 일시적인 격정이나 열정. 또는 예술에 있어서의 주관적·감정적 요소

13) 하옥성, 「숭고로 본 경외(敬畏) 표현 연구」, 박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 대학원, 2023, p.14.

14) 장파, 앞의 책, pp.222-225.

15) 주량즈, 『미학으로 동양 인문학을 꿰뚫다』, 신원봉 옮김, 알마, 2013, p.221.

3. 작품에 나타나는 승고미

물은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하고 얼음, 바다, 파도 등과 같이 모습이 변화하더라도 그것이 가진 본래의 성질은 물이며 잠재적인 거대한 에너지를 가짐과 동시에 시각적인 자극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건드린다. 연구자에게 이러한 물은 하나의 강력한 도구로 작용해 복잡하고 혼란한 내면과 의식을 세척하면서 새롭게 환기시켜주고 삶을 통해 생성되는 에너지들의 충돌을 희석하고 완충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복합적인 감정의 소용돌이를 일으켜 내면을 정리하기에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감정인 승고와 같다고 생각했다. 이를 화면에 표현하면서 작품 화면에 나타나는 ‘물’의 이미지는 승고의 매개체로서 작용한다.

1) 물과 승고미

예술가의 창조적 행위는 자연을 체험하고 느끼며 대상의 단순한 재현이 아닌 생명력을 갖춘 색다른 존재로 창조한다. 연구자는 여러 자연의 소재 중 물의 이미지를 차용해 자연 일부의 인간, 자연과 인간의 관계인식, 삶과 자연 등의 중첩된 경험을 통해 생성된 거대한 에너지를 응축함, 경외감으로서 나타내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개인에게 생성되는 에너지의 순환과 승고는 합일되며 물은 연구자의 영감의 원천이 된다. 이를 표현한 화면 속 물의 극적인 움직임은 하나의 표현방식으로서 연구자의 작품 속에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승고의 모습과 함께 나타나는 물의 이미지는 카츠시카 호쿠사이(Katsushika Hokusai, 1760-1849)의 판화집 중 <가나가와 앞바다의 큰 파도>라는 작품과 이노코 도시유키(Inoko Toshiyuki, 1977-)의 작품<Black Waves: 잃어버림, 물입과 재생>작품, 베로키오(Andrea Del Verrocch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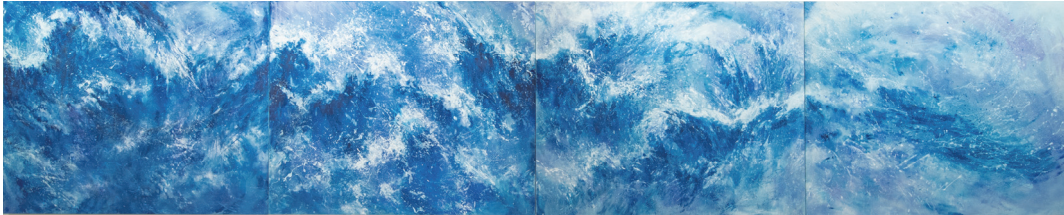
1435-1488)의 <그리스도의 세례>작품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본다.

【작품 1】은 앞서 말한 작가들의 작품처럼 물의 거대한 에너지와 그 순환이 잘 드러난 작품이다. 그러나 본인은 단지 물의 상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백색과 푸른색 물의 표현에 집중하며 물에서 나타나는 깨끗하고 신선한 이미지를 빌려 화면 속에 초월적인 공간의 순간들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작품 화면에서 푸른색이 많이 드러나는데 서양의 차갑고 어두운 이미지가 아닌 동양에서 나타나는 밝고, 맑고 깨끗한 이미지로서 작품에 사용되고 있다.

또한 연구자는 실생활 속에 생산되는 에너지와 그로 인해 만들어지는 충돌에 관심이 많다. 생명체는 그 탄생에서부터 바로 그 존재감을 드러내며 에너지를 내뿜는다. 이러한 에너지는 서로 복잡하게 얽혀 관계를 형성한다. 이는 연구자에게도 영향을 미쳐 인식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미 적용되어 깊은 무의식에 자리잡아 다른 에너지와 정면충돌한다. 이는 연구자에게 관계 속 에너지들의 충돌로 인해 생성되는 상처나 기스, 혹은 답답함과 압박감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에너지들은 계속 중첩되어 쌓이며 다른 에너지의 흔적을 또 다른 에너지를 통해 지우게 된다. 이를 연구자는 ‘물’이라는 소재의 상징성과 에너지를 통해 중첩된 에너지의 흔적을 닦아내고 세척하는 방식으로 풀어냈고 이는 작품화면 속 물의 이미지로 나타나게 되었다.

처음에는 무의식적으로 내면의 에너지들의 충돌을 해소하고자 1차적으로 연구자에게 가장 다가가기 쉽고 거부감이 없는 물의 이미지들을 찾아보고 물이 있는 장소에도 찾아가며 내면의 충돌을 완충하고자 하였다. 이후 그 이미지는 2차적으로 작품에 표현되었고 연구자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내면을 새롭게 탈바꿈시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기에서 오는 만족감은 연구자에게 강렬히 각인되었고 이는 복잡하고 알 수 없는 감성과 에너지로 연구자 안에

남아 거대한 물회오리처럼 휘몰아치게 된다. 이러한 감성을 연구자는 형용할 수 없는 승고라 생각했고 이를 표현하기 위해 현재 연구자에게 제일 친숙하게 다가오며, 자주 생각하고 상상하는 물의 이미지를 차용해 표현하게 되었다.



【작품 1】

환기, 2023, 광목천에 채색, 130.3×648.8cm

【작품 1】은 전통적인 안료를 사용해 표현된 내적 심상 속 사유하는 파랑으로써 반추상적으로 표현된 작품이다. 화면 속 변화는 작품을 바라보는 관객에게 시각적인 푸른색과 파랑(波浪)을 인식시키고 내적인 경험과의 충돌을 통해 강렬한 정화적 환기로서 존재하게 된다. 이는 사회 속 아주 작은 존재인 인간이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수 없음에 고통을 느끼는 것을 넘어 초탈한 의식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며 우리의 삶이 끝나기 전까지의 무한한 루틴 속 환기되는 순환과정을 이야기한다. 끝없이 시원한 푸른색의 물 이미지는 계속 진행되고 반복되는 삶 안에서 에너지들의 충돌을 회석하고 완충해준다. 이는 보는 이의 상상력을 자극시켜 상호작용을 생성해 승고의 계기를 만들고 이를 사유하게 만든다.

2) 무한한 물의 조형성

경험한 물의 이미지와 이를 통해 경험된 복합적인 감성은 물이 가진 거대한 에너지와 순환적인 환기를 통해 초월적인 의식으로 넘어가 거대하고 신선

한 감성의 체험으로 물의 조형성을 가지고 연구자에게 다가온다. 이는 시각적인 인식을 통해 내면의 상상과 초월적인 의식으로 이어져 영감을 가져다주며 물의 미시적 관점(물방울 입자)과 거시적 관점(물줄기, 파랑)의 조형적인 특성을 통해 무한함을 가지고 작품에 나타난다. 본 절에서는 물이 가진 조형적인 특성을 통해 작품에 등장하는 물의 무한한 이미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물의 형상을 4가지로 분류했으며, 물방울, 흐름, 솟아오름, 부서지는 파랑 순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물방울은 물의 가장 기본적인 형상임과 동시에 고유의 형태가 고정되지 않으며, 외부의 요건에 따라 구축된 형상과 색의 변화를 통해 시각적으로 형상과 크기가 정해지지 않는 무한성을 가진 실존적 개체로 인식할 수 있다. 이는 물방울이 통일, 반복, 리듬, 변화, 강조, 변형의 조형성을 띠는 것을 보여주며, 물방울들이 하나의 거대한 물을 만들면 이는 【작품 2】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물의 수평성을 통해 순환하며 단독적인 흐름을 만들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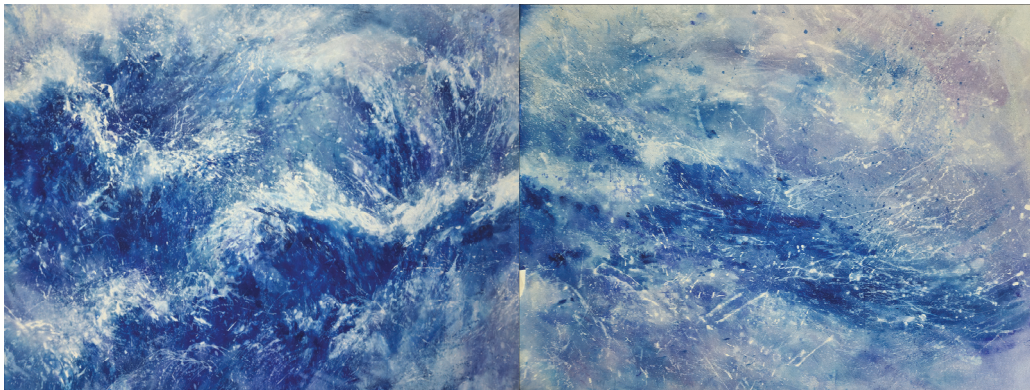


【작품 2】
variety no.1, 2023, 광목천에 채색, 41×110cm

【작품 2】는 물방울들의 서로 다른 방향의 튕김으로 떠오르고, 떨어지고 모였다가 흩어지는 모습을 통해 물방울의 다양하고 무한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물방울은 어느 방향으로 튕지 알 수 없고 파문과 파동을 끊임없이 만들며 물에서 부유한다. 이러한 모습은 물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변화와 무한함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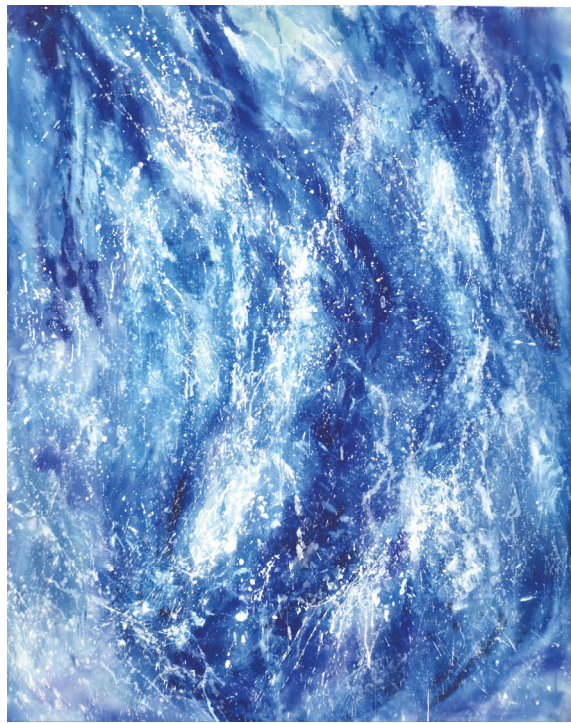
물방울들이 모여 흐르는 거대한 흐름은 수많은 물방울의 중첩과 순환을 통해 만들어진다. 이러한 물의 흐름은 움직이는 듯한 리듬감 있는 곡선의 형상으로 가변적인 움직임의 의미하고 변화, 반복, 통일의 조형적 속성을 가진다. 이를 통해 움직임과 리듬이 생기게 되며 이때 유사한 표상과 색감, 점과 선의 방향 등의 중첩과 반복을 통해 우리의 눈에 시각화된다. 이는 【작품 3】, 【작품 4】의 화면 속 공간에서의 비어있는 공간을 통해 다른 공간 사이의 중첩 속 깊이감으로 드러난다. 이런 깊이감은 리듬의 변화를 불러오고 움직임의 변화도 일으키며, 물의 특성인 위에서 아래로, 순환과정 속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거대한 에너지 흐름의 과정의 서사로 정리되어 화면에 표현되었다. 이를 통해 【작품 3】과 【작품 4】의 화면에서 무한정한 순환의 시작과 끝을 보여주고 형상화할 수 없는 의식의 전경을 보여주고 있다.



【작품 3】
refreshing(part 1), 2023,
캔버스 2합 천에 채색, 130.3×162.2cm

【작품 4】
refreshing(part 2), 2023,
캔버스 2합 천에 채색, 130.3×162.2cm

우리가 강물, 바다, 계곡 등의 물 주변을 보면 물은 하염없이 흐르며, 그 흐름은 인간이 감히 바꿀 수 없다. 만약 그 흐름을 제지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돌린다면 이 과정에서 물 분자들과 물방울들의 결집력은 강력해지며 수면의 외부적인 요건에 의해 파동과 물보라, 물기둥, 파도 등이 생성된다. 이렇게 물에서 생성된 에너지는 마치 폭탄과도 같이 거대한 에너지를 축적한다. 이는 우리에게 솟아오르는 형상으로 변형, 변화, 움직임, 에너지를 가진 조형적인 모습으로 가시화되어 【작품 5】의 모습처럼 연구자의 작품에서 보여진다.



【작품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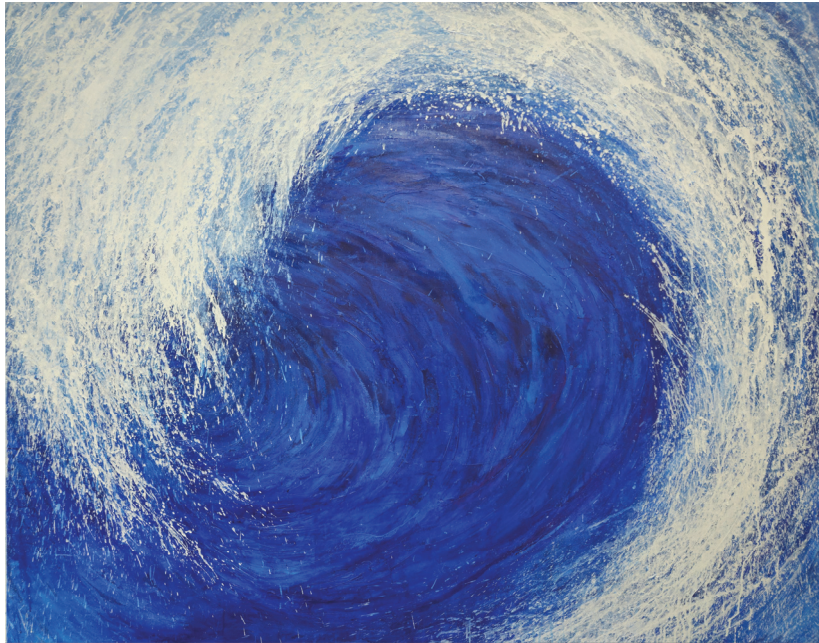
BOMB!! BOMB!! (6), 2023,
광목천에 채색, 162.2×130.3cm

【작품 5】의 화면 안에 순간적으로 솟아오르는 물은 감정의 순간적인 고조를 표현한 것으로 승고에 나타나는 고무적인 체험이 드러나고 있으며 푸른색과 흰색의 극적인 움직임을 통해 위로 솟구치는 형상으로 등장하고 있다. 거대하게 범람한 물과 같이 모든 것을 씻어버릴 수 있는 물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 물이 가지는 상쾌한 쾌감의 경험을 제공한다.

물의 에너지는 물방울에서 거대한 물로서 순환한다. 그래서 물은 솟아오름과 함께 바닥 면의 마찰과 수직운동¹⁶⁾에 대한 공간의 한계로 부서지는 속도에 차이가 나며 나선형의 움직임을 통해 부서지는 물의 파랑인 권파¹⁷⁾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권파는 파형이 붕괴함에 따라 파고는 높아지고 파형경사가 한계치를 넘기면서 대비와 변형, 강조로 나타나 조형적인 이미지를 생성한다. 이를 통해 격렬한 소용돌이 속 파랑의 에너지를 느끼게 되며 무한한 소용돌이의 연장선으로서 작품을 통해 드러난다. 끝을 알 수 없는 푸른색 물결의 움직임은 하나의 에너지로서 가장 순수한 상태로 시선을 잡아끌며 화면 안에 무한한 공간을 형성시킨다. 이는 연구자의 【작품 6】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16) 광상진. 「쇄파대에서의 월파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경기도. p.5.

17) 쇄파 중 파형 경사가 급해져 파봉이 감기듯이 쇄파되는 파. 『해양과학용어사전』, 한국해양학회, 아카데미서적, 2005.



【작품 6】

hydrologic cycle, 2024,
광목천에 혼합재료, 130.3×162.2cm

【작품 6】은 이러한 부서지는 파랑의 이미지를 통해 승고에서 가장 많이 논의된 변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끝없는 순환을 거쳐 계속해서 부서지는 거대한 파랑의 모습은 모든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에 대한 생성을 암시하며 모든 것을 씻기고 새롭게 단장하는 정화적인 상징으로써의 시원한 느낌으로 연구자 작품에 등장하게 된다.

4. 작품 분석

본 장에선 2022년의 초기 작품에서부터 2024년의 최근 작품까지 드러나는 연구자의 작품에 대해 승고와 물의 관계에 대한 표현을 3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색감과 표현, 경험을 통한 물의 이미지 속 중첩 표현 연구, 재현 너머의 창조적 승고에 대해 설명하며 작품을 분석한다.

1) 색감과 표현

연구자의 작품 속에는 다양한 물의 표상이 존재하며 이는 대부분 작품에서 푸른색으로 표현되고 있다. 물의 색채는 통상적으로 우리 눈에 가시화되는 색채와 함께 푸른 색상이 가진 상징적인 의미로 작품에 나타나고 있다. 보편적인 물의 색채는 우리의 시각을 통해 보이는 색채로, 태양광에서 푸른색을 제외한 색을 흡수하고 푸른색을 반사해 물의 색채를 인식하고 표현된다. 이러한 과학적 접근 외에도 푸른 색상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를 보면 푸른색은 신비롭고 시원하며 깨끗한 이미지가 먼저 떠오른다. 또한 에너지가 적은 차가운 색임과 동시에 가장 뜨거운 불을 표현할 수 있는 거대한 에너지를 가진 모순적인 색채이다. 이런 상징을 가진 푸른색은 다른 작가들의 작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누보 레알리즘¹⁸⁾의 대표 화가인 이브 클라인(Yves Klein, 1928-1962)은 자신의 이름을 붙인 ‘클라인의 국제적 파랑(IKB: International Klein Blue)’을 발표하였다. 그는 파란색을 강렬한 에너지가 있는 곳이며 최초의 파란 모노크롬이라고 주장한다. 감상자들은 자연스럽게 푸른색을 통해 무한한 하

18) 1960년 초 파리를 중심으로 일어난 전위적인 미술운동

늘과 바다를 경험하고 이와 연계된 경험을 통해 감정적 반응으로 확장된다고 하였다.¹⁹⁾ 클라인의 주장 외에도 칸딘스키와 피테의 말에서 우리는 푸른색이 가지는 의미와 에너지에 대해 쉽게 유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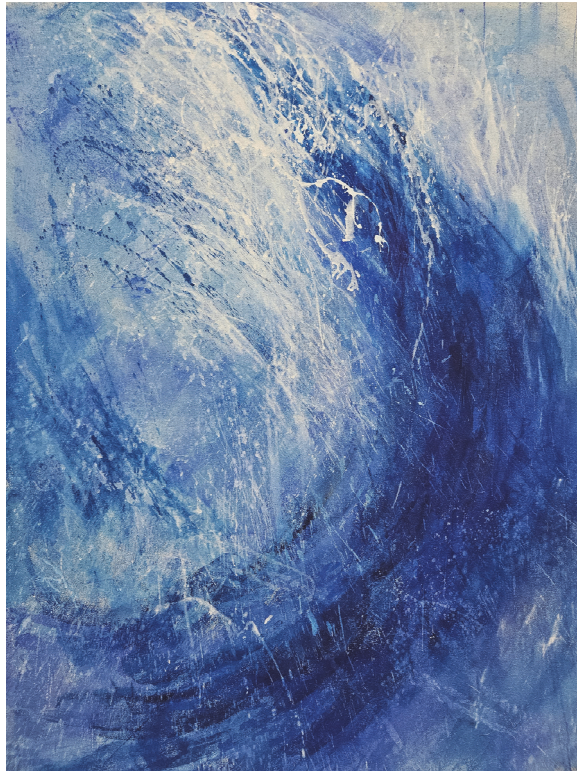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 1866-1944)는 “푸른색은 심화되면 될수록 그만큼 더 인간을 무한한 세계로 이끌어 들이고, 순수에 대한 동경과 초감각적인 것에 대한 동경을 인간에게 일깨워 준다.”고 밝히며 색채가 지닌 무한함에 집중했다. 피테(Johann Wolfgang von Goethe, 1749-1832)는 <색채론>에서 “청색은 색으로서의 하나의 에너지이며, 가장 순수한 상태이자 자극을 지닌 무(無)와 같다. 하늘과 같이 푸른 표면은 우리 눈앞에서 뒤로 물러나는 것처럼 보이며 우리의 시선을 끈다”고 하였다.²⁰⁾ 이러한 의미들을 가진 푸른색은 공통적으로 무한한 공간을 생성하며 내면의 감성을 자극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색이 가진 에너지와 힘의 작용이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으며 이는 승고와도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리오타르 승고미학을 보면 규칙을 파괴하고 재탄생한 작품은 의외성과 쇼크, 자극이라는 과정을 통해 다른 어떤 것을 매개로 설명되지 않고, 그 자체로 설명되는 ‘표상불가성’의 승고를 주장한다. 그는 승고와 같이 표현할 수 없는 대상을 표현하고자 할 때 예술가들은 ‘색’을 활용한다고 이야기한다.²¹⁾ 그 대표적인 예로 색면추상의 로스코(Mark Rothko, 1903-1970), 바넷 뉴먼(Barnett Newman, 1905-1970)을 들 수 있으며 연구자 작품에서도 【작품 7】을 통해 색이 본격적으로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19) 선지영. 「블프강라이프 작품에서 나타난 조형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2020. pp.59-60.

20) 피테, 『색채론』, 장희창 역, 민음사, 2003, p.253.

21) 선지영. 앞의 논문, p.53.



【작품 7】

BOMB!! 1, 2023, 광목천에 채색, 117×91cm

【작품 7】은 물이 가지는 에너지를 푸른 색채를 통해 거대한 형상과 깊이를 표현함으로써, 연구자의 일상 속 신체와 내면에 쌓인 피로감과 고통을 씻어내는 역할을 한다. 물의 이미지가 가지는 상쾌함, 깨끗함, 시원함 등의 정화적인 이미지를 통해 내면의 정신과 감정의 환기를 촉발한다. 이를 푸른 색감으로 표현하면서 내면적 환기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된다. 이는 곧 내면의 무한한 환기를 의미하며 물의 색채를 통해 내면으로 넘어가게 되는 과정을 확인하게 되었다.

【작품 7】은 빈 화면에서 붓을 들고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물의 형상을 즉흥적으로 그려내면서 내면에 잠재돼있는 충동들을 화면에 표출했다. 내면을 비워내면서 화면에 표출된 에너지들은 작품 화면 안에 폭발하듯이 나타

난다. 이는 주관적이고 분명하게 나타나는 푸른색을 통해 물질적인 세계가
가시화되고 끝없는 깊이를 표출할 수 있는 신비롭고 추상적인 색채로서 작
품에 드러나고 있다.

이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는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의 쾌감을 느
꼈으며 이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작용해 비정형적인 강렬한 에너지를 가진
복합적인 감성을 물질적으로 담아내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물의 에너지를 통한 움직임은 푸른색으로 대치되어 【작품 8】을 비
롯해 본 논문에 사용된 대부분의 연구자의 작품에서 드러난다.



【작품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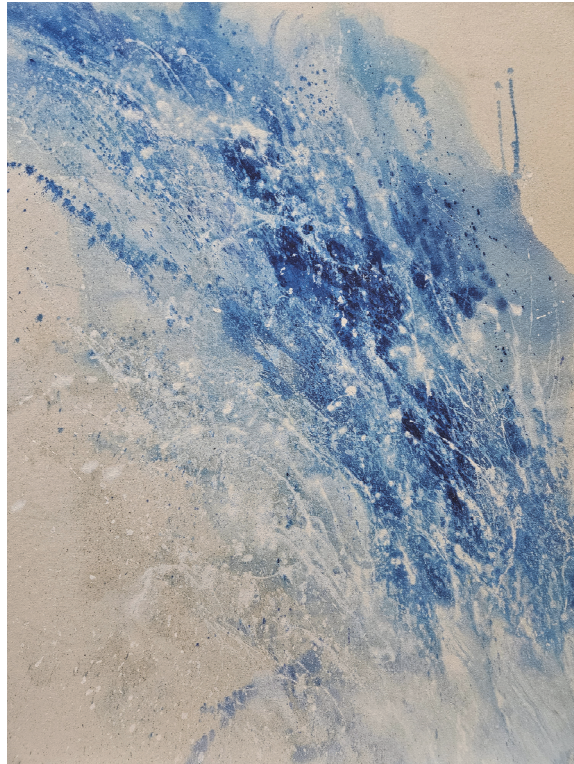
deep in the water no.2, 2024, 팽목천에 채색, 89.5×145.7cm

【작품 8】을 보면, 짙은 감색과, 청색, 군청색, 미감 등의 다채로운 푸른
색으로 화면을 가득 채웠다. 화면 가득한 푸른 색감은 색면추상인 바넷 뉴
먼(Barnett Newman, 1905-1970)이나 마크 로스코(Mark Rothko, 1903-1970),
이브 클라인(Yves Klein, 1928-1962)의 작품과 유사한 면이 있다. 다만 연구
자의 작품은 청색만을 쓴 작품이 아닌 청색 계열의 톤을 사용해 표현되고
있다. 이전의 작품들은 물의 형상이 모두 드러나는 방식의 화면으로 구성했

으나 【작품 8】을 작업할 당시 연구자 내면에서 느껴지는 강렬한 에너지들의 움직임을 화면에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고민하는 시기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물의 움직임을 확대해 표현하게 되면서 푸른색이라는 색채의 시각적인 효과에 대해 연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곧 하나의 톤으로 화면 가득 채우면서 푸른색이 가지는 효과를 극대화해 보여주어 화면 밖의 공간까지 상상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화면을 구성하는 방식을 생각하게 되었다.

푸른색 톤을 극대화하기 위해 튜브물감을 사용해 일차적으로 화면에 깔고 2차로 젓소로 밝은 부분을 강조한 후 분채를 깔았다. 이후 더 깊은 심연을 표현하기 위해 코지마의 농축 수성안료로 직접적으로 작품 화면에 맞게 흘뿌려 분무기의 물과 거친 붓질로 흘려보내 작품을 완성했다.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색감들의 중첩과 반복적인 행위들은 하나의 의식처럼 작용해 내면을 씻기고 비워내 파란 색감이 가진 에너지의 깊이감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반복적인 행위와 표현은 이후 작업에 반영돼 색감만이 아닌 표현적 제스처에 집중하게 되었다. 또한 【작품 8】을 시작으로 파란색은 단순한 재료가 아닌 하나의 에너지이자 초월적인 정신으로 작품에서 쓰이며 무한한 에너지에 대한 경외심과 환상적인 특성을 가진 색채로서 상징되어 연구자의 작품에 나타나게 된다.

연구자의 작품에선 푸른색 외에도 백색을 사용하는 작품을 볼 수 있는데 백색은 우리의 일상에서 다양한 색을 언급할 때 가장 빈번하게 회자되는 색이다. 백색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단순한 상징을 넘어 이상적이고 신화적이며, 정신적인 면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일반적인 유채색과 달리 태양, 신, 영혼 등과 같은 무거우면서 철학적인 의미를 가진 색이기 때문이다.²²⁾



【작품 9】

편안한 흔적 속 상쾌함 no.1, 2023,
캔버스 2합천에 채색, 117×91cm

연구자의 【작품 9】를 시작으로 백색은 비정형적이고 에너지적인 힘의 표출을 물방울의 모양으로 형상화되어 물이 튀어 오르는 조형성과 푸른 색감을 강조해 화면 안에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는 푸른색 외에 다른 색으로 화면을 구성하는 방식을 연구하게 되어 푸른색과 함께 자주 사용하는 백색을 화면에 주요 요소로 사용하는 범을 탐구하게 되었다. 이때 동양화에서 주로 사용하는 분채와 석채, 호분 등의 색감의 차이와 서양화에 주로 사용하는 젯소, 티타늄 아크릴물감 색감의 차이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22) 하라 켄야, 『백』, 이정환 역, 안그라픽스, 2009, p.8.

호분은 연구자가 작품에 사용하는 천에 부드럽게 스미며 백색의 톤으로 화면에서의 첫 발색 테스트에서 채도는 높으나 명도가 약한 느낌으로 부드럽게 발색되었다. 분채와 석채는 채도와 명도 모두 밝으나 안료가 천에 올라가는 시간이 오래걸려 연구자의 즉흥적인 감성의 표현에 어울리지 않았다. 반면 젯소나 티타늄 아크릴은 채도와 명도가 강해 천에 안료가 올라갈 때 밝고 쨍한 백색으로 화면에 나타났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화면을 구성할 당시 부드러운 백색과 강렬한 흰색의 차이로 화면의 깊이감을 조성하고 푸른색감과 다른 공간의 형성을 표현하게 되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 안료 사이의 여백과 백색은 물질과 비물질의 차이를 보여주고 인간의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정신적 공간, 무한성을 의미함과 동시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동경심을 유발한다. 여기에서 발견되는 백색의 무한성은 <흰 바탕 위의 흰 사각형>을 작업한 말레비치(Kazimir Severinovich Malevich, 1878-1935)의 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나는 푸른색의 등의 갓을 뚫고 흰색으로 나왔다 나를 따르라. 나의 친구 비행사여! 심연 속으로 헤엄치라. 나는 하늘의 색채장막을 극복하였다. 헤엄치라! 하얀 자유로운 심연, 무한성이 당신 앞에 있다.”²³⁾

즉, 백색은 무한성으로 교환되고 이는 연구자의 작품에서 물의 본질적인 특성을 보여주면서 동양적 사유로 쓰이는 여백을 활용해 나타나게 된다. 이는 푸른색을 통한 물의 상쾌한 쾌감과 함께 백색을 통한 정신적인 환기를 상기시켜주는 화면으로 만들어 준다. 이후 이러한 백색 혹은 흰색은 【작품 10】 , 【작품 11】 을 통해 이어져 제목을 통해 직역과 은유로서 작품의 결이 나뉘게 된다.

23) 임난영. 「백색 풍경」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8, p.29.



【작품 10】

Flood, 2024, 광목천에 혼합재료, 72.7×50cm



【작품 11】

Fool, 2024, 광목천에 채색, 50×72.7cm

【작품 10】은 작품 이름과 같이 ‘홍수’라는 이름으로 번역돼, 마치 ‘홍수’처럼 건잡을 수 없는 확장성을 표현한 작품이다. 반면 【작품 11】은 ‘기만하다’라는 의미로 물이라는 잔잔한 수면 속 팽창되는 공간으로 강렬한 에너지를 숨기고 아주 작은 물방울들의 텅김으로 표현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물방울과 물거품이 서로 다른 물과 만나거나 외부의 빛이나 대기 등을 만났을 때 백색 거품이나 물방울, 물거품 등으로 우리 눈에 가시화된다. 이러한 모습은 새로운 공간을 형성하며 무한성을 생성하게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푸른색과 백색의 층들을 통해 생성되는 에너지의 흐름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또한 연구자에게 백색은 【작품 10】, 【작품 11】을 통해 푸른색만이 시원한 쾌감을 표현할 수 있다는 연구자의 생각을 깨주었고 다른 색상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보게 만들어 주었다. 이는 색뿐만 아니라 표현방식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경험을 통한 중첩표현 연구로 발전되었다.

2) 경험을 통한 물의 이미지 속 중첩 표현 연구

물의 체험을 통한 중첩된 기억의 저 너머, 무의식을 통해 그 표상이 떠도는 공간이 생성된다. 이를 통해 물에 대한 새롭고 신선한 환기에 대해 상상하고 생각하게 되며 강렬하고 규모가 큰 선들의 중첩된 모습으로 변모하게 된다. 이는 칸트의 숭고의 미학에서도 볼 수 있다. 칸트는 숭고와 미의 관계보다 숭고와 선의 관계가 더 가깝다고 말한다. “그 자체로 목적인 지적 선은 미학의 측면에서 고찰한다면 미보다는 숭고로서 대변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²⁴⁾

24) 이초린, 「추상 회화에 나타난 숭고(Sublime)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2020. p.20.



【작품 12】

달 밤, 2022, 천에 채색, 60.6×72.7cm

【작품 12】는 한동안 색을 통해 표현한 복합적인 감성의 환기를 색이 아닌 다른 것으로 표현해 볼 수 있는지 생각해보면서 시작된 작품이다. 삶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경험과 체험은 기억이라는 메모리칩에 들어가고, 쉬여 평상시에 그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은 실제로 ‘뇌’라는 메모리칩에 들어가 있으며 데이터의 양도 방대하다. 이는 곧 중첩된 경험을 통해 기억들이 무의식으로 들어가 모습을 숨길뿐 그 에너지는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마음과 정신에 상기시킬 때 거대한 데이터이자 에너지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 이러한 모습은 연구자에게 마치 깊은 밤바다의 너울에서 보여지는 감춰진 깊이감 및 심연과 비슷하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후 등장하는 너울과 파랑의 이미지는 반복적인 경험에 축적된 중첩된 행위를 통해 【작품 12】와 같은 화면을 만들게 되었다.

【작품 12】는 붓을 통해 계속 안료를 쌓아가면서 생긴 반복적인 선의 중첩을 통해 끝을 알 수 없는 올 오버(all-over) 구도로 표현되었다. 이는 자연 속 물의 끊임없는 흐름과 움직임에 상징하며 초월적인 의식의 깊이를 표출하게 된다. 또한 물 속의 강렬하고 거친 에너지를 발견하게 해 이후 연구자의 BOMB!! 시리즈 작품으로 발전되며 물이 가진 거대한 에너지의 축적을 드립핑 기법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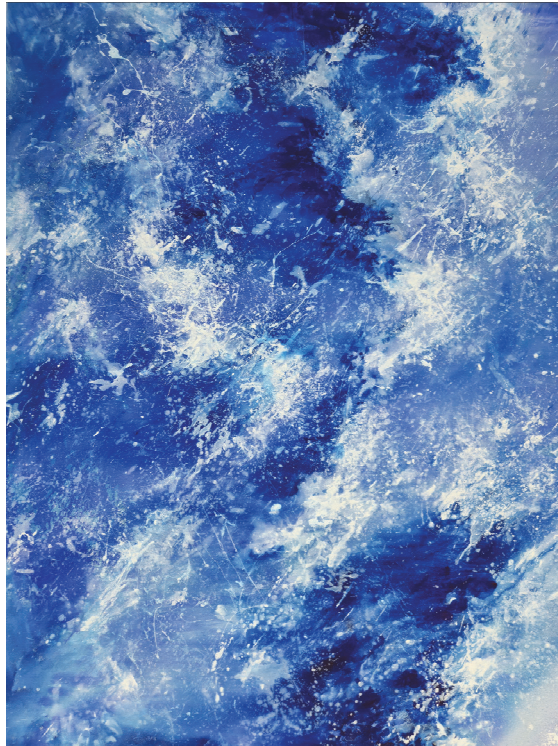
드립핑은 압축된 긴장의 공간을 형성하고 속도를 더 빠르게 가함으로써 내면의 심층까지 고조시켜 초긴장된 공간을 형성한다.²⁵⁾ 이러한 긴장은 본인에게 압축된 에너지를 연상시키며 【작품 13】에서 선(線)의 생명성에 의해 표출된다. 이를 표현하기 위해 처음에는 안료를 물에 많이 희석해 맑은 느낌을 수십번 건조시키며 다시 쌓는 방식으로 작품을 시작했었다. 그러나 연구자가 원하는 발색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고 드립핑을 통해 생성되는 화면의 긴장감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 그래서 걸쭉한 반죽과 같은 농도로 안료를 만들어 붓과 손을 통해 커다란 스윙을 만들며 뿌리는 기법을 사용하였다. 걸쭉한 안료를 만들기 위해 아교와 함께 튜브물감과 석채와 분체를 1:3으로 섞어 꾸덕하게 만든 후 소량의 물을 넣어 붓과 손에 각각 묻힌다. 이후 즉흥적으로 느껴지는 의식 속 이미지를 화면에 표현하게 된다. 여기에 드러나는 연속적인 드립핑은 즉흥성을 통해 역동적인 힘이 드러나며 반복의 경험을 통해 의식의 공간에 도달한다. 이는 격렬하고 활동적인 작업으로 표현되며 자연적이고 관조적, 신비주의적인 모습을 통해 물이 가진 자연의 거대한 에너지와 마주하게 된다.

25) 김매숙. 「재스폴록의 액션페인팅에 내재된 오토마티즘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41.



【작품 13】
BOMB!! BOMB!! (1), 2023, 광목천에 채색,
162.2×130.3cm

【작품 13】에서 연구자는 경험을 통해 계속해서 쌓이는 물의 이미지가 반복된 겹침을 통해 더 견고하고 거대한 에너지로서 연구자의 뇌에 침투해 자리잡힌다는 생각을 했다. 물은 하나의 거대한 자연이기에 물과 물의 만남은 우리의 경험을 더욱 증폭시킨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물의 하류와 바다가 서로 만나는 구간 속 서로 다른 새로운 물과 물이 만나는 이미지를 의식의 너머에서 꺼내면서 그 이미지들을 합쳐 표현하게 되었다. 이는 의식에 생성되는 순간 방대한 에너지와 같기에 폭탄과도 같이 헤어 나올 수 없는 물 섞임이 일어나는 모습을 통해 그려지게 되었다.



【작품 14】

Billowing water no.1, 2023, 광목천에 채색,
162.2×130.3cm

【작품 14】에서 나타난 파도는 연구자에게 중첩된 경험의 양에서 생성되는 거대한 데이터의 파도로서 마치 해일과 같은 모양새로 작품에 나타나고 있다. 해일은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지나간 자리에는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마주한다. 이러한 해일의 움직임은 인간이 조종할 수 없고 해일이 덮쳐오는 순간 앞으로 벌어질 이들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하게 된다. 연구자는 이러한 의식세계의 구성이 경험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한다. 실제 우리의 내면에선 여러 경험을 통해 의식의 세계가 생성되며 이는 또 다른 경험의 중첩을 통해 재탄생되는 잠재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즉, 우리는 경험했기에 기억하게 되고 상상하게 되며 즉각적으로 우리의 신체와 정신이 반응

하게 된다. 이는 연구자가 표현하는 물의 이미지에 영향을 주어 경험을 통한 내적 순간을 【작품 14】와 같은 화면에 담아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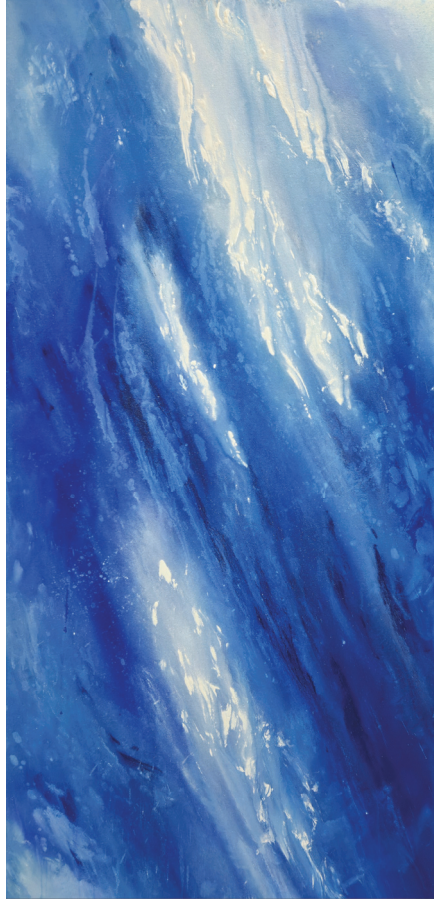
이러한 순간적인 역동성을 표현하기 위해 작품은 마르기 전에 과정을 모두 끝마치는 작업 방식을 선택하게 되었다. 먼저 작품을 위, 아래, 오른쪽, 왼쪽으로 다이아몬드 형상으로 세워 돌려가며 마르기 전 안료를 섞은 분무기로 충분히 천을 적셔준다. 이 상태에서 2차로 튜브물감을 통해 파도의 얕은 부분과 깊은 부분을 칠해주는데 물을 충분히 먹음은 천은 연구자가 돌린 방향에 따라 물이 흘러내리면서 실제 물의 흐름이 화면에 나타나게 된다. 이후 물이 서로 충돌하는 부분의 강렬함을 더하기 위해 호분젯소와 젯소를 서로 섞어 뿌린다. 힘껏 붓을 허공에서 흔들어 안료 덩어리들이 화면 안에 떨어지면 다시 작품의 방향을 돌려가며 중력을 통해 자연스럽게 안료가 흘러내리는 현상을 만들어 건조시킨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드립핑 기법의 속도감과 역동성이 강한 신체적 움직임은 물의 소용돌이에 대한 격렬한 파랑의 마찰로 화면에 표현하게 되었다. 이는 격렬한 움직임과 에너지적 표현을 통해 보는 이로 하여금 시원한 감성의 중첩을 불러일으키며 새로움에 대한 신선함을 느끼게 한다.

3) 재현 너머의 창조적 승고

상상 속 물의 이미지와 개별적인 경험을 통한 새로운 이미지의 촉발 과정을 작품의 화면을 통해 시각적으로 인식하고, 정신적인 관조로 인해 초월적인 재현의 너머의 공간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는 리오타르의 승고를 바탕으로 설명하자면 재현에 의지하는 것이 아닌 현존에 다가가는 것이다.²⁶⁾ 따라서 본인 작품은 재현의 너머로 넘어가는 과정을 통해 물과 현실의 내면적

26) 김민하, 「랑시에르의 재현 개념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2, p.52.

연결을 새로운 공간의 창조로 다가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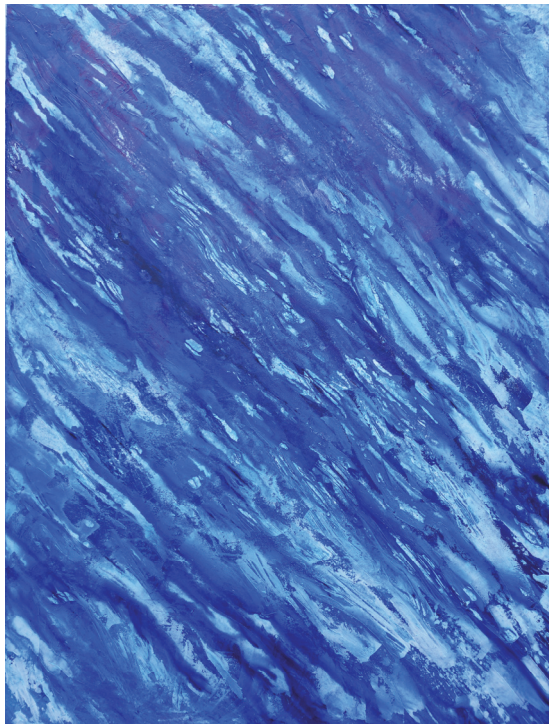


【작품15】

deep in the water, 2023,
광목천에 채색, 200×90.5cm

연구자는 【작품 15】 을 통해 재현의 너머 초월적인 공간을 마주하게 되었다. 이 공간은 마치 시간이 순간 정지한 것과 같은 느린 움직임으로 작품을 바라보게 된다. 화면에 가득 찬 푸른색 물감의 유동적인 흐름의 표현은 물의 공간 속 어딘가를 표현한 것과 같은 착각이 들게 한다. 작품의 제목처럼 깊은 물이라는 【작품 15】 는 2가지 시각을 동시에 담고 있다. 하나는 물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나타나는 물의 모습이고 나머지 하나는 물의 바깥에서 보여지는 깊은 물의 이미지이다. 이는 마치 깊은 물 속을 영유했을 때 느껴지는 부유감과 빛을 통한 흐름의 유무 및 깊이감에 대한 인지를 통해, 현실과 초월적인 의식의 연결을 지속하게 되며 무한정성과 무형식성을 보여주게 된다. 이는 물의 신선하고 환기적인 느낌과 정화적인 시원함을 초월적인 의식의 관조를 통해 바라보게 만든다.



【작품 16】

Deep water,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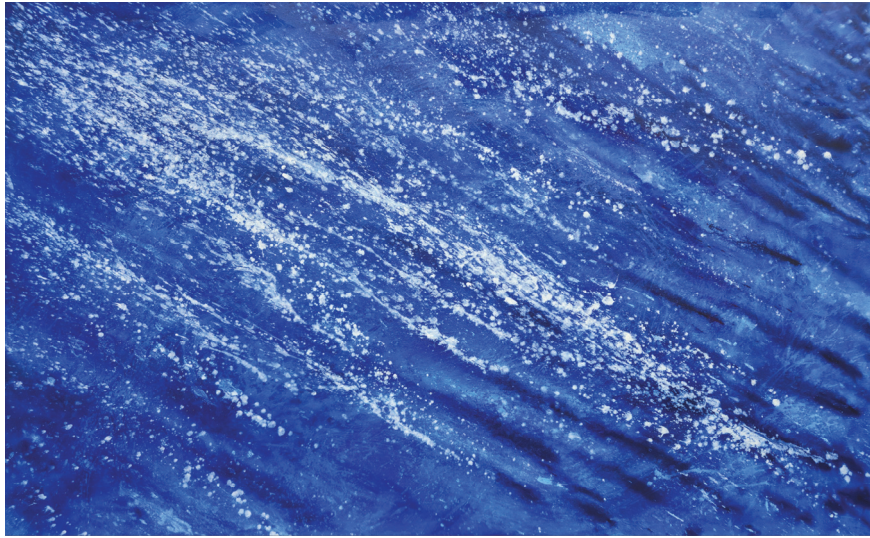
광목천에 혼합재료, 145.5×112.1cm

【작품 16】은 화면에 모델링 페이스트를 이용해 마티에르를 생성했다. 【작품 16】을 작업하기 이전부터 표면의 질감 연구를 통해 젤미디움, 농축 수성안료, 유화 등의 재료를 사용하던 중 모델링 페이스트를 발견했다. 얇고

가느다란 나이프부터 넓적하게 평평한 나이프로 표현되는 화면은 마치 물의 흐름처럼 굴곡지어 나타나고 연결되어 연구자에게 또 다른 물의 움직임으로 보여졌다. 이는 연구자가 표현하고 있는 물의 이미지와 연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얇게 여러 번 덧바르는 행위를 통해 작품과 연구자 사이의 내적 거리감은 더 가까워진다. 이를 통해 마티에르는 더욱 선명히 화면 안에 나타나며 또 다른 상상의 공간을 생성하게 된다.

【작품 16】에서 마티에르를 따라 흐르는 안료들은 마치 눈앞에 실존하는 물처럼 존재하고 작품에 안료가 안착하는 과정을 통해 비현실적인 물의 공간으로 변형되어 존재한다. 보는 이들은 신비로움과 신선함을 느끼게 되며 심해의 차가운 온도를 연상하게 하는 푸른색의 향연을 느끼게 된다. 여러 겹의 모델링 페이스트는 행위의 중첩을 통해 초월적인 의식을 촉발하고 이를 통해 화면에서 흘러나가는 힘은 가시적인 상상의 세계로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상상의 세계는 물의 거대한 힘으로 그 이전의 것들을 파괴함과 동시에 새로운 창조적 영감을 불어넣어 재현 너머 개개인이 생각하는 신선함이 강한 이미지에 도달하게 한다.

이후의 작업과정에도 이러한 창조적 영감은 영향을 주며 모호한 물의 형상을 통해 물 외의 이미지를 상상하게 만들어 새로운 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열게 된다. 이는 상상의 세계를 통해 새로운 물의 이미지로 탈바꿈하면서 내면의 영역이 확장됨을 나타낸다.



【작품 17】

water washed, 2024, 광목천에 채색, 89.9×145.7cm

【작품 17】의 화면은 물의 기포를 통해 마치 아주 빠른 속력으로 물이 흘러내리는 장면 같기도 하며 우주에 흩날리는 은하의 모습을 표현한 것 같이 보이기도 한다. 이는 창조적 영감의 영향으로 먼저 시각적인 물로서 인식되지만, 개별적인 경험을 가진 보는 이는 경험에 대한 중첩으로 인해 물이 아닌 또 다른 이미지로서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이미지의 존재를 인지하게 되면 이전 이미지를 파괴하며 새로운 이미지에 대한 정보수집으로 전환돼 아예 새로운 화면으로서 관객을 마주하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작품에 드러난 물의 이미지는 격렬한 감각의 너머로 빠르게 이동하며 그 속도감을 통해 초월론적인 의식의 변화를 느끼게 된다. 또한 영감을 통한 강렬한 물의 특성, 희열과 환희의 쾌감 등의 현시할 수 없는 감성과 의식의 표현을 안료의 면적인 부분의 융합과 층들을 통해 표현했다. 이러한 표현은 물을 통해 연구자가 바라보는 시원한 쾌감에 다가가는 것이라 생각했고, 물이라는 재현을 넘어 초월적인 의식을 통한 새로운 형상을 마주하게 된다.

Ⅲ. 결 론

본 연구는 물의 쾌감을 본인의 주관적인 경험에 의해 새롭게 표현된 승고의 세계를 탐구한 연구이다.

예로부터 물의 의미는 공통적으로 물의 물리적 특성을 넘어 무한한 내면세계의 장으로 진입하는 것이었다. 이는 연구자의 작품에서 시원함과 정화적 쾌감을 통해 작품 화면에 나타났다. 이러한 물은 대자연으로서 동·서양 속에서 비슷하면서도 다른 양상으로 승고와 함께 표현되어왔다. 서양에선 버크에 이어 칸트로, 자연에 대한 승고적 감성을 이야기했으며 낭만주의로 자연을 통한 승고를 인식할 수 있었고 이후 리오타르에게 이어져 승고와 내면이 깊게 이어져 있다고 하였다. 이는 동양에서도 드러나 ‘높다’, ‘크다’와 같은 단어를 통해 화복산수 같은 회화가 탄생되기도 하였다.

연구자가 생각하는 ‘물’은 항상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이에 있으며 언제나 우리의 몸과 마음속 깊숙이 내재되어 긍정적인 효과를 생성하는 하나의 장치로서 존재한다. 이는 내적 경험과 체험, 상상을 통해 연구자에게 인식된다. 무한성을 반복적으로 표출하는 자연의 순리, 생명의 탄생과 소멸, 거대한 에너지, 무한적인 순환, 공기의 이동 등은 모두 ‘물’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이며, 근원적인 쾌감을 공급해 준다. 이는 물의 어떠한 것을 뛰어넘고 그 너머의 초월적이며 내적인 쾌감을 만들어 승고의 경험을 상기시킨다.

물방울은 물의 가장 기본적인 형상임과 동시에 거대한 물의 흐름으로 변모해 순환한다. 이는 화면에서 형상화할 수 없는 의식의 전경을 보여주고 파도를 생성하고 다시 부서지며 생성과 소멸의 에너지를 반복한다. 또한 광활한 자연의 에너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승고에 대한 고무적인 체험이 드러난다. 즉, 무한한 소용돌이의 연장선으로서 끝을 알 수 없는 푸른색 물결의 움직임

임은 하나의 에너지로서 가장 순수한 상태로 시선을 잡아끌며 화면 안에 무한한 공간을 형성시킨다. 이는 연구자에게 먼저 색감으로서 다가와 푸른색과 백색의 작품 화면으로 나타났다. 이후 경험의 중첩을 통한 의식의 장이 확장되며 작업을 하는 연구자뿐만 아니라 보는 이들까지 연관된 창조적인 공간을 마주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을 통해 연구자의 작품을 분석하였다. 먼저 송고의 매개체로서의 푸른색과 흰색을 통해 물의 시원한 느낌을 인지하고 물의 거대한 잠재적 에너지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시원한 느낌과 거대한 에너지의 표현을 극대화하기 위해 화면 가득 하나의 색채로 작품 화면을 만들게 되었다. 특히 푸른색과 백색에 중점을 둔 작업으로 이를 표현하였는데 이를 위해 여러 안료들의 채도와 명도 및 바탕천과의 상성을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분채와 수성 농축안료, 젯소 등에 나타난 색감의 차이는 색이 가지는 깊은 힘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고 이는 연구자가 표현하고 싶은 시원한 쾌감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즉, 푸른색과 백색은 연구자의 작품에서 에너지를 상징하는 색채이자 초월적인 의식의 장을 생성해주는 상징성과 창작의 영감을 제공해준다.

두 번째로는 연구자의 경험의 중첩을 통해 표현한 물의 이미지가 어떤 표현을 통해 내면과 연결되는지 살펴보았다. 획의 중첩과 드립핑 기법을 통한 무의식적 중첩은 거친 붓질과 손의 스윙에 의해 생성된 선들의 반복으로 화면에 나타난다. 이는 연구자의 작품 BOMB!! 시리즈에 중점적으로 드러나며 긴장감을 통해 마치 폭탄이 터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물의 이미지는 현실에 존재하는 물의 이미지가 아닌 의식의 너머에 존재하게 된다. 경험의 중첩을 통해 뇌에 새겨지는 물의 이미지는 거대한 해일이 되고 부서지는 파도가 되며 실제로 보았던 이미지보다 가중해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뇌에 들어간 데이터를 다시 가상의 혹은 의식의 장으로 꺼내었

을 때 그 시너지는 감히 상상할 수 없다. 이는 작품창작 과정을 통해 새롭게 생성되는 상상의 장의 확장으로 작품세계가 구성되며 물의 무한한 순환과 움직임으로 치환되어 내면의 장의 확장으로 화면에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재현의 너머로 넘어가는 과정을 통해 승고의 현존에 다가가며 보는 이를 통해 생성되는 창조적 공간을 살펴봤다. 개개인의 개별적인 경험에 의해 화면 속 물 이미지가 파괴되고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해 등장시키게 된다. 이러한 이미지는 모델링 페이스트와 젯소를 통해 화면에서 마띠에르 질감과 색감의 맞닿음으로 인해 이중적인 모습으로 재탄생된다. 거친 붓질과 흡수되는 안료의 층들로 생산된 에너지는 보는 이와 작품 사이의 상호작용을 생성해 물이 우주가 되고 얼음 혹은 물의 안과 밖의 시선으로서 변화되어 나타난다. 이는 곧 초월론적인 의식으로 형상적 환원이 일어나 새로운 공간을 확인시켜 준다.

연구자는 작품의 창작 과정 및 전시를 승고 그 자체로 설명한다. 연구자가 작품을 바라보고 제작하는 과정, 전시하는 과정을 통해 물의 상징적 이미지로 시작한 시원하고 환기적인 쾌감은 승고로 진행된다. 이 과정은 거대한 에너지를 통해 기존의 것을 파괴하고 사유하며, 새로운 생성을 통해 긍정적이며 정화적인 효과를 체험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본인은 내면의 정리 및 씻김의 초월적 의식을 의미하는 물의 시원하고 상쾌한 느낌을 다른 이들도 경험하기를 바라며 현실과 상상 너머에 기반한 승고적인 내면을 드러내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작업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구약성서』
가스똥 바솔라르, 『물과 꿈』, 이가림 역, 문예, 1980.
피테, 『색채론』, 장희창 역, 민음사, 2003.
김형효, 『사유하는 도덕경』, 소나무, 2004.
박규철, 『그리스 로마 철학 이야기』, 동과 서, 2011.
안성찬 『승고의 미학: 파괴와 혁신의 문화적 동력』, 유로서적, 2004.
장파, 『동양과 서양 그리고 미학』, 유중하 역, 푸른숲, 1999.
주랑즈, 『미학으로 동양 인문학을 꿰뚫다』, 신원봉 역, 알마, 2013.
하라 켄야, 『백』, 이정환 역, 안그라픽스, 2009.

사전

- 한국해양학회, 『해양과학용어사전』, 아카데미서적, 2005.

국내논문

- 김민하, 「랑시에르의 재현 개념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22.
김매숙, 「잭슨폴록의 액션페인팅에 내재된 오토마티즘에 관한 연구」, 홍익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곽상진, 「쇄파대에서의 월파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 논문, 2010.
- 박지용, 「칸트의 숭고 개념과 숭고의 미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 선지영, 「블프강라이프 작품에서 나타난 조형성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0.
- 임난영, 「백색 풍경」,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 임명선, 「회화작품에서 물의 상징적 의미와 치유적 성격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이초린, 「추상 회화에 나타난 숭고(Sublime)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0.
- 안성찬, 「숭고의 미학: 그 기원과 개념사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 차오위, 「현대미술의 물(水)에 대한 사상 표현 연구.」, 群山大學校 박사학위논문, 2020.
- 하옥성, 「숭고로 본 경외(敬畏) 표현 연구」, 목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3.

ABSTRACT

The expression of sublime through the image of water

- Focusing on your own work. -

Ji, Hyeyeong

Department of Oriental Paint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is paper explores the screen with cool and evocative pleasure as it approaches the sublime through the image of water with overwhelming energy. For researchers, water provides pleasure as a huge energy, which has a close interaction with internal experience.

The image of water is largely the image of vitality, extinction, regeneration, and evocation, and has been commonly used from ancient times through the overlap of history and experience. Throughout the times, it has existed as a medium that connects reality and the inner side of individuals through free thinking and symbols.

Water exists as a medium to express sublime in the researcher's work and responds to the great energy of nature. Sublime is similar and different in the East and the West. In the West, it is said that it is a transcendent inner activity that cannot be reproduced with complex emotions as ideas of sublime continue to be centered on Burke, Kant, and

Liotar. In the East, nature, which humans can't help, is represented as a mystical sublime through the concepts of 'high' and 'large'.

This sublime appears as an aesthetic emotion that cannot be revealed to the researcher, and through repeated experiences, it appears as a fresh and refreshing pleasure. This appears on the screen in the dynamic form of water, creates a creative inner space, and confirms the cool energy of finite but infinite water through the formability of the water.

The researcher expresses various energy collisions generated in life through the colors filled on the screen, and triggers the evocation of inner minds and emotions through the energy and symbols of colors. These screens reminded me of the inner space by the experiences in the unconscious and focused on expressing the overlapping experiences through life on the screen. This visualizes beyond the transcendent inner world revealed to reality through the overlap and drip technique of lines. Moving beyond the world of consciousness with this visual perception reincarnates the viewer's individual experience in a creative form. Through transcendental reduction beyond representation, it is replaced by formative reduction and completed as a creative space. This is shown by borrowing the image of water in the researcher's work. Through the transcendental consciousness of inner arrangement and washing, it is possible to destroy and think about the existing from the visual part, and experience the ultimate and purifying effect through new birth. Through this, we hope that the cool and refreshing feeling of water will be revealed, and we hope that it will induce various interpretations of the sublime and provide inner pleasure.